

동아시아 鑣轡의 구조적 분석과 전개

장 윤 정*

〈목 차〉

- I. 머리말
- II. 연구사
- III. 우리나라 출토 재갈의 型式分類
- IV. 동아시아 鑣轡의 분포와 전개
- V. 맺음말

국문요약

서아시아·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분포한 鑣轡로 불리어지는 棒狀 재갈멈추개를 주제로 하여 마구의 전개 과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갈멈추개와 銜의 결합방식에 주목하여 貫通式, 一體式, 結合式, 插入式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貫通式은 재갈멈추개 중앙에 뚫린 구멍에 銜 본체가 통과한 후 棒狀 양쪽 끝에 銜 외환을 만든 것이고 一體式은 함 외환에 재갈멈추개를 직접 붙여 고정·제작한 것이다. 結合式은 재갈멈추개 자체에 뚫린 구멍(銜孔) 혹은 고리에 함 외환이 연결된 것이고 插入式은 이제까지 鑣轡로 알려진 것으로 함 외환에 棒狀의 재갈멈추개가 삽입된 것이다. 이들 鑣轡라는 특징적인 형태를 가진 재갈은 서아시아·중앙아시아에서 전파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까지 약 1500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확인되고 있지만 그 정도와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鑣轡, 棒狀 재갈멈추개, 貫通式, 一體式, 結合式, 插入式, 서아시아·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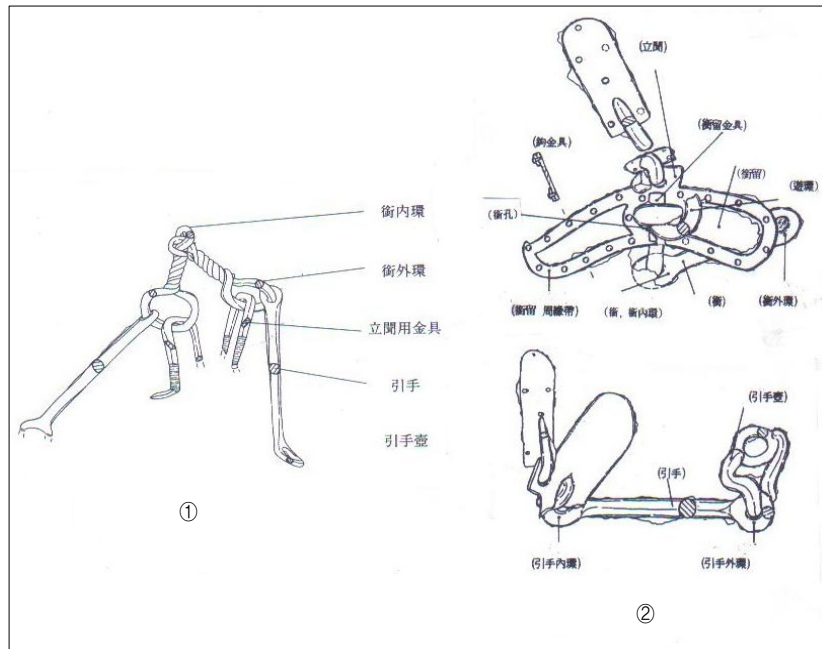
* 부경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I. 머리말

재갈은 騎手의 의지를 말에 전달하는 장비로 마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진 部品이다. 실제 機能的인 면에서는 이것만으로도 乘馬가 가능하다.(도 1)

재갈 부속품 가운데 銜이 말 입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銜을 말머리에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치를 재갈멈추개(cheek-piece)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鑣라 하고 일본에서는 鏡板이라고 한다. (이난영·김두철 1999)

이제까지 삼국시대 재갈은 재갈멈추개의 형태에 따라 크게 鑣, 板鑣, 環板鑣, 圓環鑣 등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져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관비는 銜과 引手의 연결이 판비와 마찬가지로 재갈멈추개의 중앙에서 이루어지지만 外形과 제작방법의 차이를 중시하여 다른 형식으로 불리워졌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판비는 함 외환을 함 구멍에 넣은 후 橫(縱)방향의 銜留金具를 걸쳐 고정하는 것에 대해 환관비는 X자형 함유금구를 틀에 고정시킨 후 함 외환을 걸친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도 1. 재갈의 부분 명칭
 ①鑣(상주 신흥리 라 89호분) ②鏡板鑣(부산 복천동 23호분)

판비와 환판비의 구성요소 중 함 외환과 함유금구를 고정하는 방법을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판비의 경우, 재갈멈추개에 함유금구를 앞으로 고정시키고 함 외환을 연결할 수 있다. 환판비 역시 X자형, 人자형, 逆T자형 등 함유금구에 銜과 遊環을 걸치고 있는 점에서는 판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外形이 環狀인 점에 착안을 하면 보통의 판비에서 板狀이 가지는 면적과 같은 면적을 환판비는 확보하는 동시에 재료를 절약하는 利點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鑣轡를 보면, 현존하는 銜과 인수의 조합, 입문용금구의 잔존,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 등의 요소로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재갈멈추개 外形(형태)의 유사성이 강조되어 기술적인 계보를 보다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결합방식의 차이를 경시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II. 연구사

본격적으로 鑣轡를 정의한 鈴木 治는 표비에 대해 銜이 2連式이고 각각 함 외환에 『鑣』를 통과시켜 장착한 것이라고 하였다.(鈴木治 1958) 또한 銜은 1連式이고 板狀의 재갈멈추개 중앙에 뚫린 함 구멍에 銜을 관통시켜 고정된 것을 鑣轡라고 하였다.¹⁾

伊藤秋男은 우리나라 출토 표비를 검토하고 6가지 특징을 지적하였다.(伊藤秋男 1974) ① 재갈멈추개가 없는 것. ② 함 외환이 직경 5cm전후의 큰 圓環으로 이루어진 것. 圓環은 銜과 일체가 되고 銜의 일부를 이루며 그 圓環에 引手가 직접 연결된 것. ③ 함 양쪽 외환에 각각 1개의 U자형 혹은 雙脚形 금구가 圓環 일부를 걸친 상태로 녹슬어 있는 것. ④ 금구는 양쪽 脚部가 매우 長大하고 마치 안교에 장착되는 교구와 비슷한 것. ⑤ 금구 兩脚 끝이 거의 직각으로 외측 또는 내측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 ⑥ 금구 脚部에 폭 약 1~2cm정도의 木質 내지는 骨質이 확인되거나 兩脚을 가로지르는 상태로 木質痕 혹은 骨質痕이 남아있는 경우 등이다.

鈴木 治와 伊藤秋男의 연구에서 鑣와 銜의 장착방법에 관계없이 함 외환을 통과한 재갈멈추개가 棒狀의 部材(鑣)를 사용하고 있는 재갈을 표비라고

¹⁾ 『鑣』은 擬聲表音文字로 銜과 재갈멈추개가 접촉할 때 내는 음향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鑣』와 달리 재갈멈추개와 銜이 부딪칠 때 내는 음향이 유달리 시끄럽고 『鑣』字는 이것에서 착안된 문자로 추정되고 있다.(鈴木治 1958)

부르고 있다.

최근 桃崎祐輔는 표비를 전반적인 구조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① 銜만 있고 인수가 없는 것(無引手), ② 함 외환에 인수를 직접 장착한 것, ③ 함 외환과 인수 사이에 遊環을 사용한 것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桃崎祐輔 1999)

한편, 김두철은 銜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재갈멈추개로서 함 외환에 棒狀의 도구, 즉 鑣(side-bar)를 끼워 넣은 재갈을 표비라고 하였다.(이난영·김두철 1999)

朴重均은 청주 봉명동유적 출토 표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4세기대 백제 초기 재갈에 대해 2연식 철제 표비로 銜은 2가닥의 철봉 외환이 내환보다 크기가 크다. 또한 함 외환과 인수 내환의 연결은 모두 직접 연결하였으며 인수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朴重均 2005)

成正鏞은 마노산성 출토 금속제 표비를 소개하면서 원삼국시대 鑣가 재질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鑣 중앙에 2孔을 뚫어 거기에 두락의 끈을 통과시키는데 반해,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시대 鑣는 立聞(立聞用金具)을 일체형으로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成正鏞 외 2007)

이제까지의 대체적인 흐름은 재갈멈추개의 형태에 중점을 鑣轡의 定義이다. 재갈멈추개와 銜의 결합방식은 다양하여 재갈멈추개의 外形만 다르고 결합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기술계통상 동일한 예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출토 재갈을 대상으로 銜과 재갈 멈추개의 결합방법을 중심으로 형식분류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함 외환에 棒狀의 재갈멈추개를 끼워 넣은 기존의 표비로 규정된 재갈이 서아시아에서 중국, 우리나라를 걸쳐 일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로 다른 型式들과 공존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재갈이라는 공통된 형식을 결합방식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Ⅲ. 우리나라 출토 재갈의 型式分類

현재 鑣轡라는 용어는 銜과의 결합방식에 관계없이 함 외환을 통과한 재갈 멈추개의 형태가 棒狀을 띠고 있는 재갈이라는 의미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분류인 재갈멈추개 外形(형태)으로 구분된 「板狀」, 「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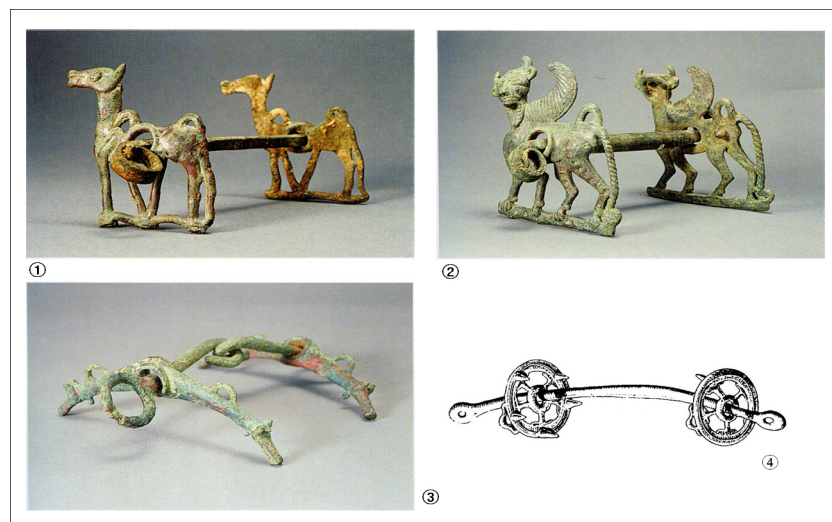
狀, 『棒狀』(『鑣』) 등을 바탕으로 銜과의 결합방식에 중점을 둔 새로운 分類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재갈을 대상으로 하며 이 때 棒狀의 재갈멈추개를 가진 재갈이 주체이지만 필요에 따라 板狀과 環狀의 재갈멈추개를 가진 재갈도 언급하고자 한다. 銜과 재갈멈추개의 결합방식에 주목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貫通式

재갈멈추개 중앙에 뚫린 구멍으로 棒狀의 銜 본체를 통과시킨 후 棒狀 양 끝에 함 외환을 만든 것으로 여기에서는 『貫通式』이라고 한다. 鈴木분류의 『鑣轡』에 해당된다. 재갈멈추개 外形(형태)은 板狀이 대부분이며 棒狀도 소수 확인되고 있다. 재갈멈추개의 재질은 모두 금속제이다.(도 2)

貫通式의 始原은 서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이란 자그로스산맥 서부에 위치하는 루리스탄지역에서 기원전 1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제 재갈이 알려져 있다. 재갈멈추개의 형태는 동물의 意匠을 표현한 板狀形으로 재갈멈추개 중앙에 뚫린 구멍으로 銜을 통과시키고 있어 貫通式에 해당된다. (岡山市立オリエント美術館 2002) 또한 棒狀形의 재갈멈추개 양쪽에 말머리가 장식된 것으로 금속제 인수가 공반되지 않은 유례도 확인되고 있다.(도2-③)



도 2. 貫通式의 유례

①-③ 루리스탄지역 출토품 ④ 가자(Gaza) 지구 출토품

한편, 銜 본체가 하나의 棒으로 된 1連式은 루리스탄지역에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 두 개의 銜으로 이루어진 2連式은 주로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棒狀의 재갈멈추개는 의성 학미리 3호 수혈식석곽 출토 예가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5세기 후엽이후에 해당된다.(경북대학교박물관 2002) 이 외 貫通式은 板狀의 재갈멈추개를 가진 합천 옥전 20호분 예²⁾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보고서에서 함유금구가 없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貫通式에는 棒狀과 板狀의 재갈멈추개가 공존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5세기~6세기대가 중심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2. 一體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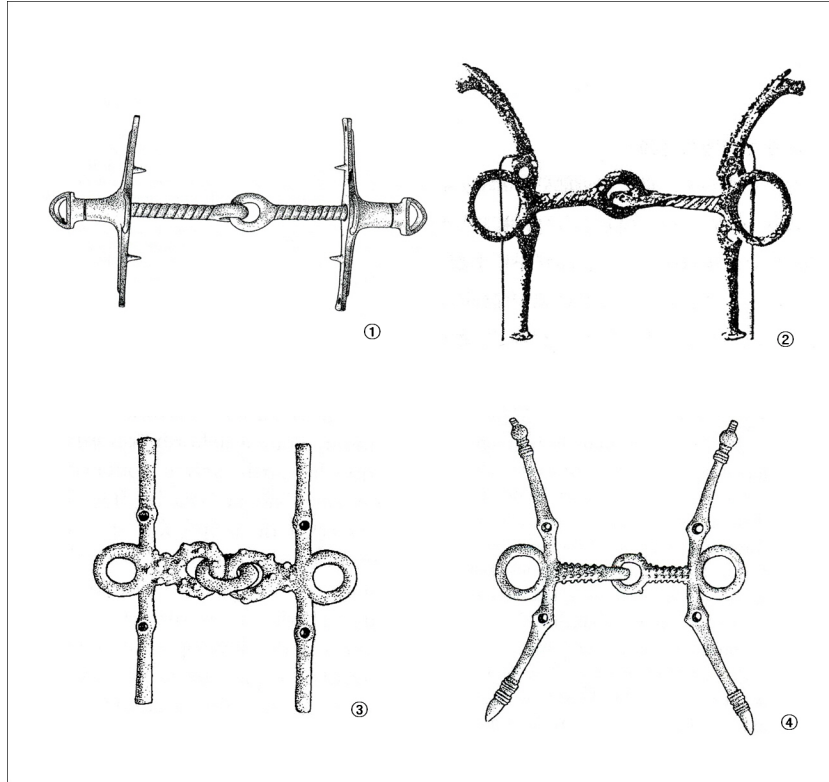
함 외환과 재갈멈추개를 같이 붙여 고정·제작한 것으로 「一體式」이라고 한다. 유례가 적은 편에 속하며 재갈멈추개의 형태는 板狀과 棒狀이 공존한다.(도 3)

보통 一體式은 함 외환이 재갈멈추개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갈멈추개와 같이 붙어 하나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貫通式이 간략화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유례는 루리스탄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재갈멈추개의 형태가 棒狀으로 말 모양인 것도 있다.(馬の博物館 2001) 말머리를 위로 한 상태에서 棒狀 중간에 구멍이 두 개 있고 두 구멍사이에 함 외환이 위치하는 형상이다.(도3-②) 즉, 재갈멈추개인 馬形 棒狀과 함 외환이 동시에 주조되었다고 생각된다.³⁾

지리적으로 서아시아·중앙아시아에 가까운 내몽고지역은 寧城縣 南山根 101호묘·102호묘 출토품이 있으며 이것은 기원전 9세기~7세기로 알려져 있다.(東京國立博物館 1997) 101호묘 예는 銜과 함유금구가 可動式으로 조립된 형태로 주조품이다. 銜 양쪽은 함유금구에 걸쳐져 탈락되지 않게 끝이 작은

²⁾ 보고서의 표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재갈멈추개는 下緣이 내만한 평면 타원형으로서 제작은 두께 0.3cm의 철판을 재단하여 본체를 만든 다음 周緣은 外側으로 폭 0.3cm정도 등글게 접었다. 銜留金具는 없으며 둥근 횡장방형의 銜孔을 통하여 銜外環이 外側으로 돌출되었다. (중략) 銜과 재갈멈추개, 引手의 연결방법은, 재갈멈추개는 銜留金具를 통하여 銜에 끼워졌으며 銜外環과 引手內環은 遊環을 매개로 하여 연결된 銜 - 遊環 - 引手의 간접연결법을 취하고 있다.(경상대학교박물관 1998) 이 때 함유금구가 처음부터 없었는지 사용하다 결손되어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결손되어 없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³⁾ 또 다른 예를 소개하면 재갈멈추개가 銜과 하나로 주조가 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는다.(高浜秀·林俊雄·雪嶋宏一編 1992)



도 3.一體式的 유레
①, ③, ④ 이집트 출토품 ② 이란 출토품

원판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작은 圓柱形 돌기가 만들어져 있다. 함유금구는 十자형을 띠며 끝은 갈고리모양으로 안쪽에 돌출되어 있다. 이 유형은 貫通式이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圓形에 가까운 재갈멈추개 안쪽에 작은 못처럼 돌기가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예와 유사하다.(岡野正男 2000) 한편, 102호묘 출토품은 管처럼 된 「く」자형 재갈멈추개를 가진 것으로 銜 양쪽은 작은 원판으로 되어 있다. 함 외환과 재갈멈추개가 T자형을 이루고 외측에 3개의 구멍을 가진 예는(岡野正男 2000), 도면상의 판단이지만一體式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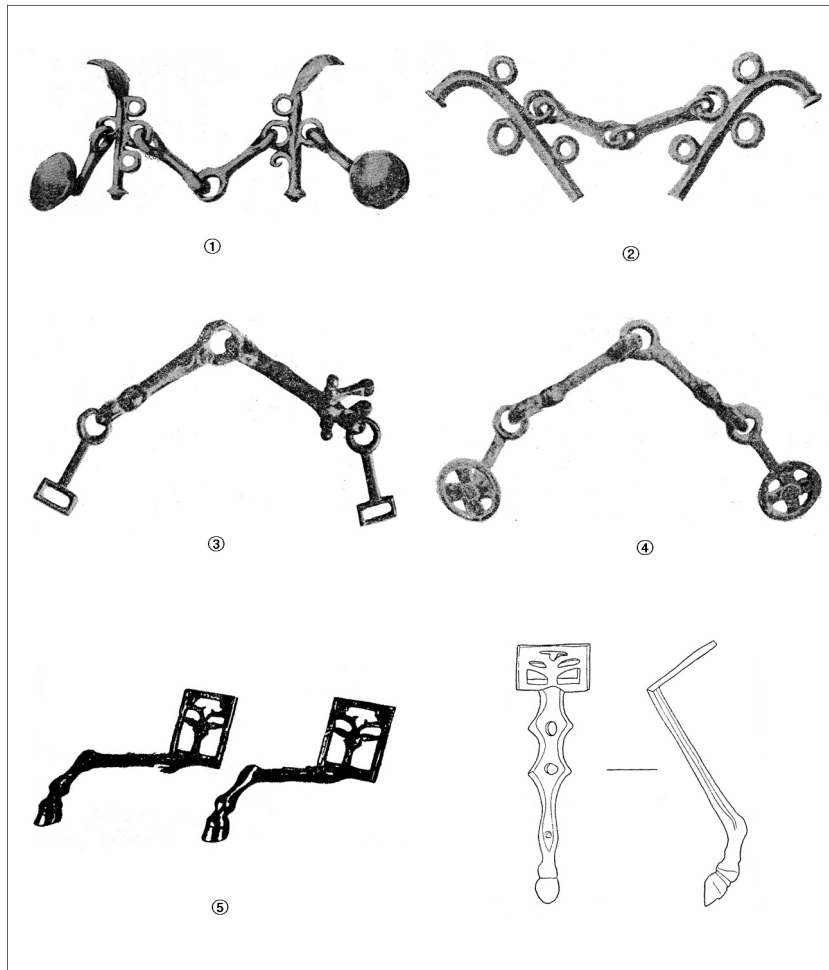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一體式으로 추정되는 유레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 이것과 유사한 형태가 스키타이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插入式으로 표현되어 있다.(M. A. LITTAUER AND J. H. CROUWEL, 2002) 실물을 견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插入式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結合式

재갈멈추개 자체에 뚫린 구멍 혹은 고리(環)에 함 외환을 연결시킨 것으로 「結合式」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재갈멈추개에 구멍을 뚫은 경우 함유금구가 부착되어 있어 함 외환과 연결시킬 수 있다. 재갈멈추개의 外形(형태)은 板狀, 棒狀, 環狀 등이 알려져 있다.(도 4-①~④)

현재 러시아 연방인 카라차이체르케시아공화국의 쿠반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北카프카스지방에서 러시아공화국의 드네프르강 유역에 이르는 스텝지대 및 삼림 스텝지대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재갈이 있다. 주로 스키타이민족이 제작·



도 4. 스키타이지역 출토 재갈의 유례
 ①② 코반 ③키에프지방 ④코반 ⑤드네프르유역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일명 「스키타이식 재갈」이라고 불린다. 그 연대는 기원전 9세기~4세기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山本忠尙 1972) 스키타이식 재갈에는 結合式과 挿入式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棒狀의 재갈멈추개에 고리(環)가 부착되어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예가 있다. 구멍(孔) 또는 고리(環)가 3개 부착된 금속제가 특징적이며 이것을 「三環式」, 「三孔式」이라고 한다.(도 4-①, ②) 함 외환 역시 2개가 연결해 있는 이른바 「2連接外環」銜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도 4-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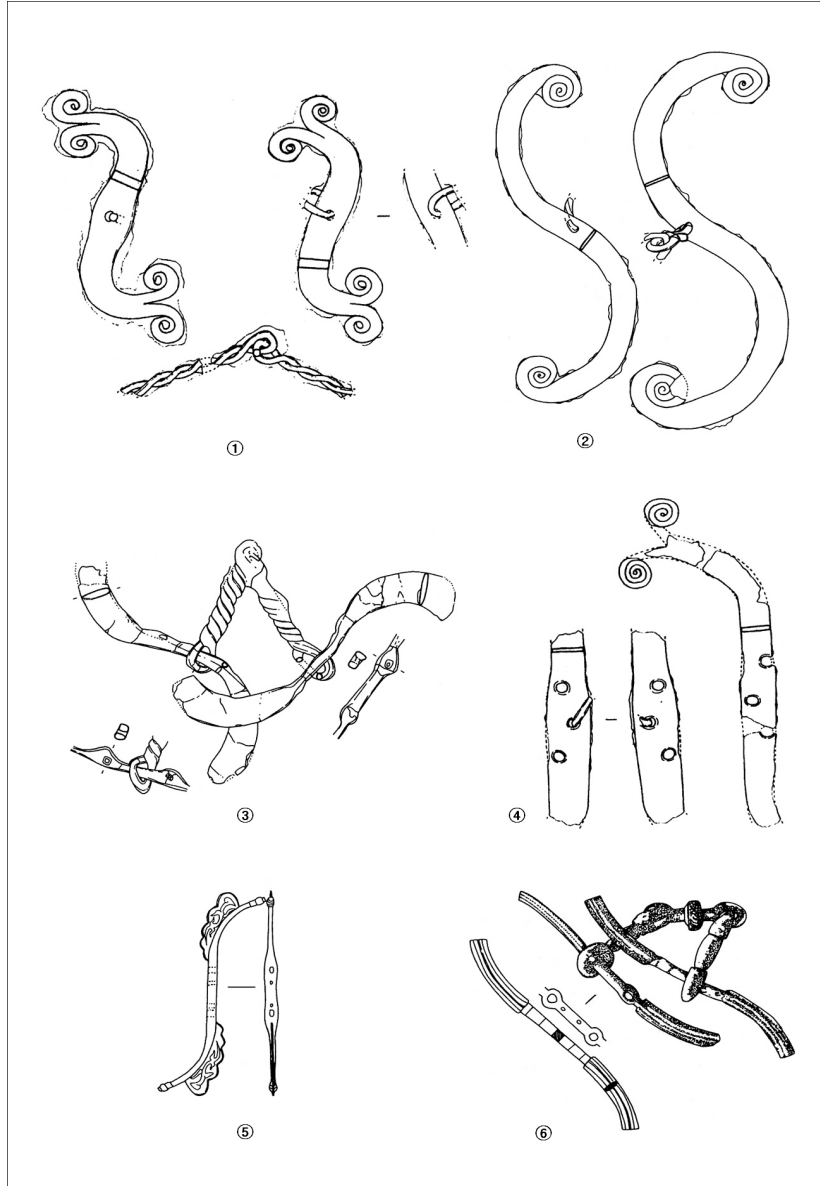
2連接外環의 銜과 三環式·三孔式의 결합방식은 銜과 棒狀 재갈멈추개가 직접 연결, 혹은 끈이나 띠로 서로 연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2連接外環 중 남은 구멍 혹은 고리 하나에는引手가 장착되었을 것이다. 結合式 중 가장 이른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連接外環의 銜에 棒狀의 재갈멈추개를 동반하는 것과 재갈멈추개 없이 확인되는 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또한 형태가 다른 銜에서도 재갈멈추개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 전체 수의 50%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생각된다.(山本忠尙 1972)

棒狀 재갈멈추개 중에서 구멍(孔) 혹은 고리(環) 3개를 가진 것은 재갈멈추개 중앙과 양쪽에 등간격으로 구멍 또는 고리를 배치한 것과 중앙에 3개를 집중시킨 것이 있다. 前者는 현재 러시아공화국의 돈·도네츠크강 유역 카미세바후, 이즈요무, 러시아공화국의 도네프르강 유역 보루세이베로제류카 등에서, 後者は 러시아공화국 도네프르강 유역의 자보친 524호묘, 스타루샤-야묘지 1호묘, 에미체카 375호묘 등에서 그 유례가 알려져 있다. 같은 그룹 내에서의 시기적인 차이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기원전 6세기경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시야를 우리나라로 돌리면 棒狀의 재갈멈추개 중 結合式에 해당되는 것으로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 중앙에 구멍을 가진 예가 있다. 이런 유형에 주목한 김두철은 구멍 수가 2개인 것과 1개인 것으로 구분하고 前者에서 後者로 변천한다고 생각하였다.(이난영·김두철 1999) 시기에 대해 前者는 삼한시대 木棺墓이며 김해 양동리 162호묘 단계인 3세기이전, 後者は 삼한시대 木槨墓 단계이며 4세기대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구멍이 하나인 것을 1孔式, 구멍이 2개인 것을 2孔式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먼저 1孔式의 결합방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멍(孔)에 銜이 걸쳐졌다고 생각되지만 구멍에 남겨진 斷片에서 구멍과 銜을 별개의 고리(環)로 연결한 것도 있다.⁵⁾ 유례는 경주 황성동 1호분·同 46호분, 울산 하대 1호 목곽묘·

⁵⁾ 울산 하대 1호분 출토 예를 들 수 있다.



도 5. 우리나라 출토 재갈의 유례

- ① 포항 옥석리 113호분 ②울산 하대 1호분 ③경산 임당동 A-I-96호분
 ④ 포항 옥석리 115호분 ⑤평양 석암리 219호 목곽묘 ⑥ 평양 석암리 9호 목곽묘

同 43호 목곽묘, 포항 옥석리 113호 목곽묘 등에서 출토되었다.(도 5-①, ②)

재갈머추개의 형태가 板狀인 結合式은 김해 대성동 41호분, 마산 현동 43호분, 부산 북천동 95호분, 경주 월성로 가13호분 등의 출토품이 있다. 이들은

立聞을 가진 타원형 혹은 사각형의 재갈멈추개에 함유금구가 만들어져 있어 銜과 연결되고 금속제 인수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板狀의 재갈멈추개는 5세기 전엽이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도면에서, 특히 타원형의 재갈멈추개에 함유금구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 貫通式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⁶⁾ 예를 들면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의 경우, 실측도와 사진 등에서는 함유금구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실물을 관찰하면 함유금구를 가진 結合式이다.⁷⁾

또한 「2連接外環」을 가진 銜은 板狀의 재갈멈추개를 동반하고 있다. 익산 입점리 1호분,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등의 예가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5세기 후반이후에 속한다.

4. 插入式

기존의 표비로 알려진 대부분의 것이 여기에 속하며 함 외환에 재갈멈추개(鑣)를 통과시킨 것이다. 여기서는 「插入式」이라고 한다. 재갈멈추개의 外形(형태)은 棒狀이 주류를 이루며 재질은 金屬製와 有機質製가 있다.

먼저, 스키타이식 재갈 중 插入式은 棒狀 재갈멈추개 중앙에 구멍 2개를 가진 것으로 두 구멍사이의 재갈멈추개 폭은 다른 부위, 즉 양 끝의 재갈멈추개 폭보다 얇게 만들어져 있다. 재질은 청동제 또는 철제이다. 이 가운데 S자형으로 구부러진 棒狀 재갈멈추개의 양끝에 맹수 발을 표현하거나 2개의 발톱을 소용돌이처럼 묘사한 예도 있다.(増田精一 1964) 棒狀의 재갈멈추개 중앙에는 구멍 2개가 뚫려 있다.(도 4-5)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5세기~4세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山本忠尙 1972)

또한 伊藤秋男이 지적한 금속제 「鑣」를 사용한 표비와 같이 棒狀 재갈멈추개에 立聞을 부착한 유례는 중앙아시아에서 동유럽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다. 기원전 4세기·3세기로 추정되는 돈강 하류의 도뉴로후카 9호분을 비롯한 중부 우랄산맥 서쪽의 피에루무시 네브오리노 48호분, 마찬가지로 남부 우랄산맥 서쪽의 우할시 비루스크 2호분 등 前者는 6세기, 後者는 4세기~5세기의 예로 오랫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伊藤秋男 1974)

우리나라의 경우, 插入式에는 금속제 棒狀의 재갈멈추개를 가진 것과 현

⁶⁾ 경주 황남대총 북분·천마총·식리총·금령총·노서동 138호분·은령총·황남동 151호석실분, 창녕 교동 7호분·11호분, 대구 내당동 55호분, 남원 월산리 M1-A호분 등 낙동강 以東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예가 結合式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⁷⁾ 이 외에 天馬塚 출토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존하지 않는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가 사용된 예가 있다.

먼저 금속제 棒狀의 재갈멈추개를 가진 것은 평양 석암리 9호목곽묘·194호목곽묘·219호목곽묘, 평양 대동군 상리, 평양 정백동 37호목곽묘 등의 예가 알려져 있다. 재갈멈추개 양쪽 끝에 고사리문양을 장식하고 중앙보다 폭을 넓게 한 것, 구멍(孔)이 없는 예로 함 외환에 挿入되는 중앙을 가늘게 만들고 양쪽 끝을 두껍게 한 것 등이 보인다. 평양 석암리 219호목곽묘에서는 화분형토기, 광구단경호, 차마구, 농공구, 칠기, 청동용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高久健二분류에 의하면 정백동 2호분, 정백동 17호분, 정백동 37호분 등과 같은 시기에 해당된다. 정백동 37호분에서 地節四年(기원전 66년), 정백동 2호분에서 永始三年(기원전 14년)의 기년명이 있으므로 기원전 1세기 후반대로 추정되고 있다.(도 5-⑤)(樂浪漢墓刊行會 1975, 高久健二 1995)

또한 김해 양동리 162호묘, 창원 다호리 69호분·同 70호분, 대구 평리동, 경산 입당동 A-I-96호분·同 A-I-139호분·A-I-145호분 등의 유례가 알려져 있다.(도 5-③) 이 가운데 대구 평리동은 세형동검을 비롯한 銅戈, 十字形劍 把頭飾, 전한말기의 虺龍文鏡, 한국제 방제경 등이 출토되어 심봉근 분류에서 영천 어은동유적과 함께 韓國式銅劍期 제4기에 해당된다. 이 단계는 대략 기원전 1세기 말엽에서 기원 1세기대로 추정되고 있다.(尹容鎮 1981, 沈奉謹 1999)

구멍(孔)이 있는 棒狀의 재갈멈추개는 구멍이 2개인 것과 함께 4개인 것도 있다.⁸⁾ 앞에서 서술한 김두철이 주목한 2孔을 가진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도 挿入式에 속하며 함 외환은 棒狀 재갈멈추개 중앙의 두 구멍사이에 가늘게 만들어진 부분에 걸쳐지게 된다.

여기서는 棒狀 재갈멈추개 중앙에 4개의 구멍(孔)을 뚫은 것에 주목하고 싶다. 본래 挿入式에서 확인되는 2개의 구멍(孔)은 면계와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4개의 구멍은 함 외환이 재갈멈추개에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첨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棒狀의 재갈멈추개 중앙에 4孔이 있는 출토품(도 5-⑤, ⑥)은 구멍 4개 가운데 2개의 구멍은 함 외환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끈 등을 이용하여 함 외환을 고정하고 나머지 구멍 2개는 면계와의 연결에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⁸⁾ 또한 옥성리 115호분과 같이 구멍이 3개인 것도 있다.(도 5-④) 이에 대해 김두철은 양쪽 두락 연결구멍 2개를 생략하고 중앙의 함 연결구멍 1개만을 남기는 형식으로 정형화되어 간다고 하였다. 또한 銜 연결구멍 1개가 폭 중앙에 뚫려 있는 것에 반해 옥성리 115호분의 3개는 모두 측면쪽에 치우쳐 뚫려 있는 것도 변화과정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3개의 구멍 크기가 거의 유사한 점 등에서 구멍 1개인 것과 공존하면서 3개의 구멍을 만들었지만 양쪽 구멍 2개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함 외환을 고정하는 구멍의 기능은 插入式에서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를 가진 것, 立聞과 재갈멈추개가 일체형으로 된 것 혹은 별개의 고리(環)를 이용하여 함 외환을 고정하는 것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에 立聞을 가진 예는 부산 복천동 38호분·同 60호분, 김해 대성동 2호분, 경주 내남면 탑리, 천안 두정동 5호분 등의 자료가 알려져 있다. 연대는 대략 4세기~6세기에 속하며 이른 시기의 것은 4세기 중엽부터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경철은 복천동 60호분과 대성동 2호분 출토품과 같이, 재갈멈추개의 형태가 S자형인 것은 중국 吉林省 榆樹老河深 中層56호묘 예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낙동강하류지역 초기마구의 직접적인 계보로 추정하고 있다.(신경철 1997) 연대는 대략 4세기~6세기로 이른 시기의 것은 4세기 중엽부터 출현한다고 추정되고 있다.⁹⁾

한편,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는 입문용금구가 그 기능, 즉 함 외환이 재갈멈추개에서 빠지지 않게 고정하고 면계와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된다.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를 가진 것은 입문용금구만 잔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伊藤秋男이 지적한 것과 같이, 녹각 등의 棒狀 재갈멈추개를 함 외환에 통과시킨 뒤 U자형 혹은 鉸具形 금구의 양쪽 다리사이에 함 외환을 걸치고 금구 先端을 棒狀 재갈멈추개에 관통시켜 함 외환이 재갈멈추개로부터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생각된다. 입문용금구는 부산 복천동 69호분·71호분 등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그들의 시기는 동반되는 파수부노형기대, 원저호 등에서 38호분은 4세기 전엽, 60호분과 69호분은 4세기 중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4型式 중 발생학적 면에서는 貫通式과 一體式이 結合式과 插入式보다는 앞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結合式과 插入式이 貫通式과 一體式보다 이른 시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의 표비로 알려진 재갈은 결합식과 삽입식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鑣轡」로 일괄되어 온 棒狀 재갈멈추개는 銜과의 결합방식이라는 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結合式과 插入式이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독자적인 형태의 발전도 확인되고 있다.

⁹⁾ 경주 내남면 탑리 예의 연대에 대해 이상률은 재질을 비롯하여 표의 형태가 斷面 圓形의 棒狀인 점에서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대의 낙랑목곽묘에서 출토된 漢式표비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鑣가 함 외환에 삽입되지 않고 銜身에 별도로 環을 만들어 삽입시킨 점, 遊環의 존재, 표 중앙에 부착한 立聞 역할의 금구 등에서 4세기대에 속할 가능성도 시사하였다.(이상률 1996) 필자는 이 출토품을 실견하지 못해 도면으로 판단하여 착오를 범할 수 있겠지만, 함 내환과 함 외환 사이에 鑣가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一體式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IV. 동아시아 鑣鐮의 분포와 전개

4형식 가운데 우리나라 출토 鑣鐮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結合式과 插入式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는 주변의 중국과 일본에서의 출토상황 및 표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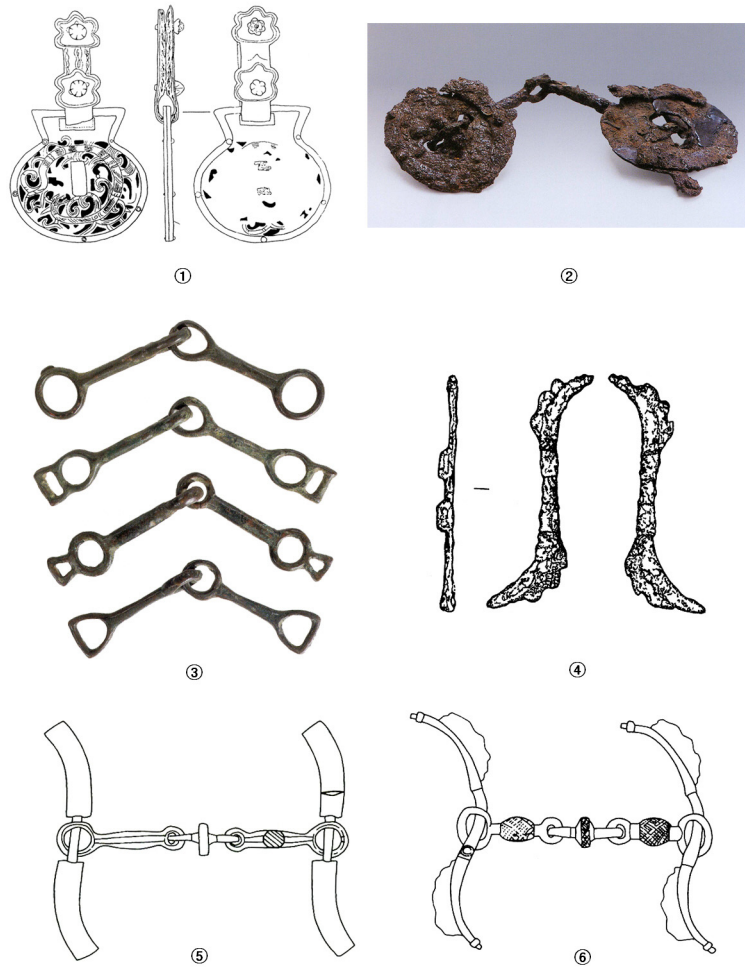
1. 분포

1) 插入式

먼저 中國의 경우, 中原지역인 湖北省 光化五座墳 3호 목곽묘, 洛陽燒溝 1038호 磚室墓, 北京大葆台墓 등에서 재갈이 출토되고 있다.(도 6-⑤, ⑥) 재갈멈추개 外形은 棒狀으로 양쪽 끝에 고사리문양 등을 장식하고 있어 棒狀 중양보다 양쪽 끝의 폭이 넓은 것도 있다. 그리고 棒狀 재갈멈추개에 스키타이식 재갈에 보이는 구멍이 없는 예도 있다. 이것은 함 외환을 통과한 棒狀 재갈멈추개는 중양을 가늘게 하고 양쪽 끝을 중양보다 두껍게 만들어 함 외환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생각된다. 銜은 2連式이외에 3連式도 보인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재갈을 이상률은 漢代 중원에서 등장·유행한 『漢式鑣鐮』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기원전 2세기~1세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이상률 1996)

또한 插入式으로 吉林省 榆樹老河深 1호묘·11호묘·56호묘·103호묘 등의 예가 있다.(도 6-④) 이 가운데 56호묘 출토품은 骨製로 생각되는 棒狀의 재갈멈추개를 동반하고 있다. 1호묘와 103호묘의 유례는 스키타이식 재갈과 유사한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로 중양에는 2개의 구멍이 있으며 두 구멍사이의 몸체 폭은 양쪽 끝보다 가늘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11호묘 출토품은 2개의 구멍(孔)대신 2개의 고리(環)를 부착한 특이한 예로서 스키타이식 재갈 유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鮮卑의 묘로 2세기정도로 추정되고 있다.(穴澤和光 1990)

한편, 日本의 插入式 중 가장 오래된 것은 福岡縣 朝倉市 池の上6호분 출토품이다.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를 삽입한 것으로 4세기 후엽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5세기에 들어서도 북부구주지역 외에 近畿지역·瀨戶內지역 및 中部高地지역 등에 상당히 밀도 높게 분포하고 있어 일본 마구 初現期에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엿볼 수 있다.(도 8-①②③) 銜과 함께 동반되는 입문용금구의 출토상황에서 녹각 등 유기질제



도 6. 中國 출토 재갈의 유례

- ① 西溝村 채집품 ② 喇嘛洞Ⅱ M196호 출토 ③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④ 榆樹老河深 11호묘 ⑤ 北京大葆台墓 ⑥ 北京大葆台墓

棒狀 재갈멈추개를 插入式으로 연결한 것이 「鑣轡」의 주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금속제棒狀 재갈멈추개를 가진 插入式 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출현이 늦어 長野縣 岡谷市 コウモリ塚古墳 등 7세기 후반부터 보인다.(도 8-⑥) 이들은 단면 角狀의 철봉을 f자형으로 구부린 재갈멈추개 중앙에 교구형의 立聞이 단접되어 있다. 立聞 다리에 해당되는 곳에 구멍을 설치하고 있으며 銜 외환 안에 棒狀 경판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런 유형의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는 우리나라에서도 7세기이후에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結合式

『2連接外環』의 銜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스키타이식 재갈에서 자주 확인되고 있다. 中國에서는 寧夏의 寧夏回族自治區 中寧縣 關帝鄉, 中衛縣 狼窩子坑, 固原縣 石喇村, 河北省 懷來縣 甘子堡, 張家口市 소재의 토광묘, 山西省 渾原縣 李峪村 所在墓 등에서 2連接外環을 가진 銜이 알려져 있다. 이 유형의 銜은(도 6-③) 스키타이지역의 것과 유사하다. 이 가운데 原平 卍峪 출토품은 2連接外環의 銜이지만 고리 안쪽은 두 개가 연결되어 하나의 구멍으로 통하고 있다.(增田精一 1996) 2連接外環을 가진 銜은 스키타이식 재갈에서 3孔 또는 3環이 달린 재갈멈추개와 함께 동반되는 예가 많은 것에 비해 이들 출토품은 재갈멈추개로 추정되는 유물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스키타이지역의 棒狀 재갈멈추개는 3環 혹은 3孔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본체에 고리와 구멍은 併用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중국 출토품은 하나의 棒狀 재갈멈추개 중앙에 고리(環)를, 그 양쪽에 구멍(孔)을 같이 배치하여 만든 것도 있다.

또한 遼寧省 朝陽縣 縣城十二台營子 제1호묘, 遼寧省 錦西烏金塘所在墓 등의 출토품이 알려져 있다. 十二台營子 제1호묘는 세형동검이 출토된 횡혈식석실묘로 春秋末~戰國初期 즉, 기원전 6세기~5세기라는 연대가 추정되고 있다.¹⁰⁾ 여기서 출토된 재갈은 銜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 대해 增田精一은 棒狀金具를 말의 뺨 양쪽에 장착하고 금구의 한쪽 구멍에는 말 鼻革에 해당되는 굴레를 통과시키고 방향이 다른 가운데 구멍에는 귀 뒤를 두른 굴레, 아랫구멍에는 턱 아래를 지나 고삐를 이루는 굴레가 되는 銜을 사용하지 않은 復元案을 제시하고 있다.(增田精一 1996) 이러한 유례(도 7)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아 스키타이지역 재갈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도 중국이 독자적으로 변화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板狀의 재갈멈추개를 가진 安陽 孝民屯154호묘 출토품 등이 알려져 있다. 이것은 立聞을 가진 타원형 재갈멈추개에 금속제 引手가 조합되어 있으며 연대는 4세기대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도면의 표현은 貫通式에 가깝지만 재갈멈추개의 함유금구에 함 외환이 걸쳐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結合式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도 6-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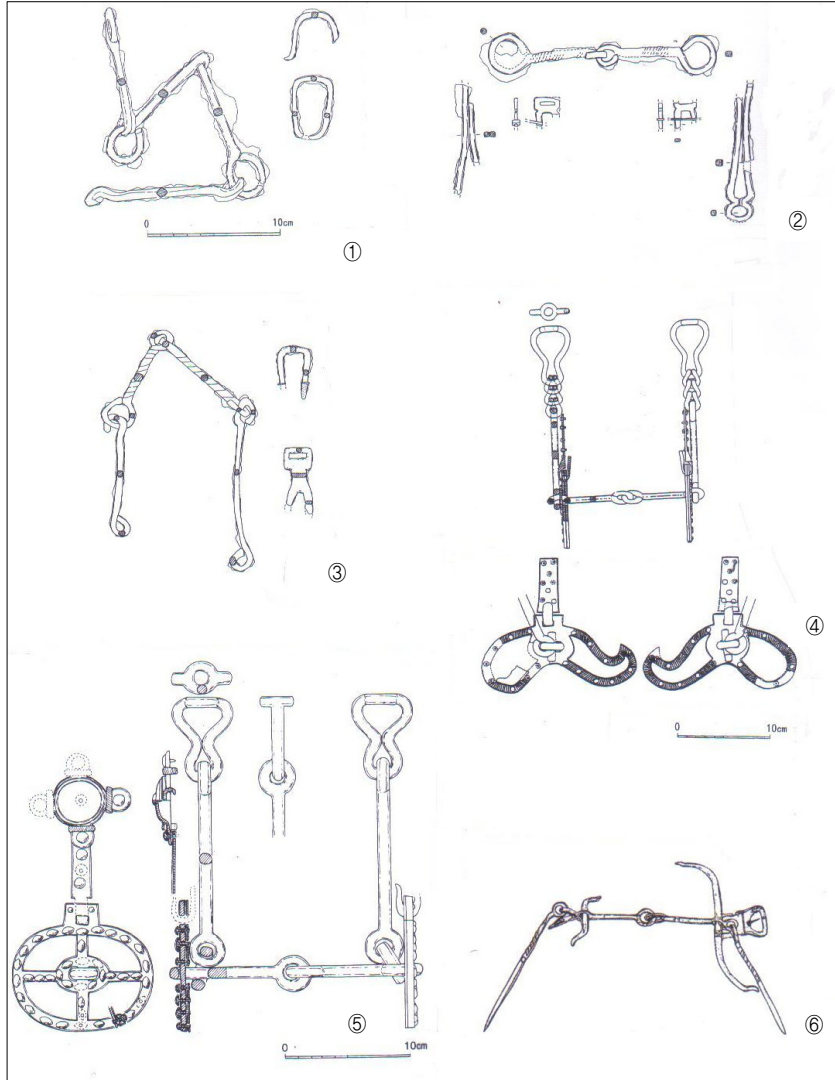
10) 제1호분에서는 방향이 다른 구멍 3개를 가진 길이 12cm의 棒狀 金具 6점이 출토되었다고 한다.(增田精一 1996)



도 7.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銜이 동반되지 않은 유례)

②③ 일본 天理대학 부속 天理參考館 소장

한편 日本에서 結合式은 板狀의 재갈멈추개가 주류를 이루며 형태는 방형, 타원형, f자형, 花形, 하트형, 刺葉形 등 다양하다.(도 8-④⑤) 이들 유례를 보면 大阪府 羽曳野市 譽田丸山古墳(방형), 滋賀縣 栗東町 新開1호분·京都府 京都市 穀塚古墳(타원형), 大阪府 藤井寺市 長持山古墳·和歌山縣 和歌山市 大谷古墳(f자형), 栃木縣 河內郡 河內町 大塚新田古墳·宮崎縣 兒湯郡 高鍋町 持田56호분(하트형), 京都府 福知山市 奉安塚古墳(자



도 8. 日本 출토 재갈의 유례

- | | |
|----------------|---------------|
| ① 岡山縣 長畝山北 3호분 | ② 福岡縣 瑞王寺古墳 |
| ③ 岡山縣 一貫西 3호분 | ④ 埼玉縣 稻荷山古墳 |
| ⑤ 滋賀縣 鴨稻荷山古墳 | ⑥ 長野縣 コウモリ塚古墳 |

엽형) 출토품 등이 알려져 있다. 板狀의 재갈멈추개에 2連接外環을 가진 銜은 福岡縣 飯塚市 宮脇古墳, 長野縣 飯田市 北本城古墳 등에서 보인다. 그리고 구멍(孔) 혹은 고리(環)를 가진 棒狀의 재갈멈추개가 結合式으로 결합된 예가 보이지 않아 일본자체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개

지금까지 서아시아를 출발하여 일본까지 각 지역의 「鑣轡」 자료를 중심으로 銜·재갈멈추개의 결합방식에 주목하여 형식분류를 실시하고 각 지역의 출토 상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鑣轡」의 기술(銜·재갈멈추개의 결합방식)과 형태(棒狀 재갈멈추개)가 어떻게 결합되어 동쪽으로 전해져 왔는지 복원해 보고자 한다.

우선 동아시아 마구의 起源地라고 할 수 있는 루리스탄지역을 포함한 서아시아와 스키타이지역에서는 銜·재갈멈추개의 결합방식에서 보면 서로가 전혀 다른 계보의 재갈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루리스탄지역은 貫通式과 一體式, 스키타이지역은 結合式과 插入式이 존재한다. 재갈멈추개의 경우, 루리스탄지역에서는 동물모양을 한 板狀 재갈멈추개를 즐겨 쓴 것에 대해 스키타이지역에서는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가 주류를 이루고 이와 함께 녹각 등의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행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재갈멈추개의 형태를 棒狀으로 사용하는 志向은 명확하게 스키타이에서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中國에서의 재갈멈추개 형태를 살펴보면 殷周時代 이후 鑣, 즉 板狀 재갈멈추개에 대한 志向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戰國時代부터 漢代에 걸쳐 서쪽 유목 諸民族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鑣, 棒狀 재갈멈추개가 성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鑣轡」는 중국 내에서도 차이가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으로 서아시아·중앙아시아에 가까운 내몽고지역에서는 루리스탄지역과 스키타이지역의 요소가 混在하고 있다. 貫通式과 一體式이 각각 존재하고 있지만 故地の 典型的인 형태는 아니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스키타이 지역의 요소인 2連接外環을 가진 銜이 금속제 재갈멈추개를 동반하지 않는 예가 있어 독자적인 變容과 改良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의 중원지역에서는 插入式의 棒狀 재갈멈추개의 형태도 다양하다. 스키타이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S자형 棒狀 재갈멈추개를 기본으로 하면서 棒狀 양쪽 끝에 장식을 붙이거나 棒狀 중앙의 일정부분을 가늘게 하는 등 독자적인 특색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2連式의 합과 함께 스키타이지역에는 없는 3連式의 합과도 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스키타이지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중국 특유의 색채를 가미하여 승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結合式 예로 板狀 재갈멈추개 중앙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모양을 한 함유금구를 부착시키고 거기에 합 외환을 걸치는 결합방

식도 보이고 있다. 또한 타원형을 띤 板狀의 재갈멈추개까지 포함하여 이들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考案한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棒狀 재갈멈추개는 대부분 結合式을 채용하고 있어 스키타이지역의 棒狀 재갈멈추개라는 형태를 사용하면서도 결합할 때 고리(環)·구멍(孔) 등의 독특한 요소를 매치시키고 있다. 여기에 銜이 출토되지 않는 것도 있어 스키타이지역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정리하면 中國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바탕으로 貫通式과 板狀 재갈멈추개, 插入式·結合式과 棒狀 재갈멈추개라는 결합방식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루리스탄지역의 貫通式, 스키타이지역의 插入式·結合式이라는 결합방식에서 사용되던 각각의 재갈멈추개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그 전통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키타이지역에서는 유기질제 및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가 結合式에 주로 사용하던 형태였던 것에 비해 중국에서는 結合式에 板狀 재갈멈추개를 조합시킨 예가 증가한다. 또한 2連接外環을 가진 銜과 결합된 棒狀 재갈멈추개의 재질이 금속제보다 유기질제(녹각 등)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서 중국은 故地의 중앙아시아에서 棒狀 재갈멈추개를 사용한 결합방식을, 板狀으로 재갈멈추개를 전환한 흔적과 先學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중국 전통의 板狀 재갈멈추개에 대한 志向이 강하고 특히,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가 板狀 재갈멈추개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황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중국과 근접한 북부지역은 插入式·結合式과 棒狀 재갈멈추개라는 결합방식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재갈멈추개의 형태 중 특히 타원형이 많은 점 등에서 중국과의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남부지역 역시 북부지역과 마찬가지로 插入式·結合式과 棒狀 재갈멈추개의 결합방식이 보인다.

結合式에 사용된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는 스키타이지역과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棒狀 재갈멈추개 중앙에 구멍을 하나만 뚫은 것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다. 插入式은 4세기 이전에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가 많이 알려져 있으며 프로펠라처럼 생긴 것이나 고사리문양 등 독자적인 장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로의 志向은 현재 알려진 출토 수와 그 비율에서 판단하면 중국보다도 강하다. 그리고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를 插入式으로 이용한 예도 5세기이후에 많아지고 銜과 재갈멈추개에 고정하기 위한 立聞用金具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양한 공정과 개량이 인정되고 있어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

으로 棒狀 재갈멈추개에 대한 志向이 매우 강하게 유지되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板狀 재갈멈추개로 분류되고 있는 『f字形』재갈멈추개의 祖形을 棒狀 재갈멈추개로 한다면 『f字形』재갈멈추개는 우리나라 혹은 일본적으로 변형시킨 금속제『鑣轡』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루리스탄지역의 貫通式과 一體式, 스키타이지역의 結合式과 插入式 모두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중국에서도 희귀한 一體式의 예가 일본에서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유례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連接外環을 가진 銜에 立聞을 갖춘 棒狀 재갈멈추개가 插入式으로 결합된 것도 우리나라와 공통된다.

한편, 구멍(孔) 혹은 고리(環)를 가진 棒狀 재갈멈추개가 結合式으로 연결된 예가 보이지 않아 일본자체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結合式에 사용된 板狀 재갈멈추개에는 방형, 타원형, f자형, 花形, 하트형, 刺葉形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立聞用金具의 출토상황에서 녹각 등 유기질제 棒狀 재갈멈추개를 插入式으로 연결한 것이 『鑣轡』의 주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板狀 재갈멈추개는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鑣轡』)는 유기질제이라는 점에서 재갈멈추개의 형태와 재질 사이에 거의 완전한 대응 관계가 확립되어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6세기 후엽이 되면 금속제 棒狀 재갈멈추개가 증가하고 棒狀 부분에 방울을 부착한 插入式 예도 유행하게 된다. 또한 재갈멈추개의 형태가 棒狀에서 板狀으로 변용된 듯한 형태인 『f字形』재갈멈추개의 출토 수도 급증한다. 이것은 結合式에서 5세기 후엽부터 확인되고 6세기대에는 일본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鑣轡』가 다른 지역에 비해 板狀의 재갈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였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은 사실을 정리하면 銜과 재갈멈추개의 결합방식으로 살펴본 재갈 제작기술은 그 淵源인 서아시아·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일본까지 거의 완전한 형태로 전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파과정 속에서 중국·우리나라 등 모든 지역에 다양한 기술적 工程과 계통이 상호 접촉하는 복잡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갈뭇추개의 형태를 棒狀으로 하는 志向은 발상지로 볼 수 있는 서아시아·중앙아시아에서 전파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까지 약 1500년의 時空을 초월하여 이어지고 있지만 그 정도와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戰國時代 이전은 棒狀의 재갈뭇추개보다 板狀의 재갈뭇추개에 대한 志向이 강하게 느껴졌던 것에 비해 기원후 4세기~5세기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는 棒狀의 재갈뭇추개에 대한 志向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직 『유기질제』라는 재질과 거의 배타적으로 결합된 특이한 형태로 棒狀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편 6세기대에는 금속제 棒狀이 증가하고 棒狀부분에 방울을 부착한 것도 종종 보인다.

■ 투고일 2010년 7월 20일 |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8일 ■

참고문헌

- 岡野正男, 2000, 『鐵の古代史-騎馬文化』白水社
- 諫早直人, 2006, 「付遍 瑞王寺古墳出土馬具再検討」『築後市内遺蹟群IX』
築後市文化財調査報告書 제73집
- 高久健二, 1995, 『樂浪古墳文化研究』學研文化社
- 金基雄, 1987, 「韓國古代의 馬銜考」『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一志社
- 金斗喆, 1991, 『三國時代 轡의 研究』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大谷猛, 1985 「日本出土の『鑣轡』について」『論集日本原史』吉川弘文館
- 桃崎祐輔, 1999, 「日本列島における騎馬文化の受容と擴散-殺馬儀禮
と初期馬具の擴散に見る慕容鮮卑・朝鮮三國伽耶の影響-」『渡
來文化の受容と展開-5世紀における政治的・社會的變化の具
體相(2)-』第46回埋藏文化財研究集會 pp.373-420
- 鈴木治, 1958, 「朝鮮半島出土の轡について(附鑣考)」『朝鮮學報』제13집
- 末崎眞澄, 1993, 「オリエントの古代銜について」『馬の博物館 研究紀
要』제6호, (財)馬事文化財團・馬の博物館
- 朴重均, 2005, 「百濟 初期 轡 小考-청주 봉명동유적 출토 鑣轡를 중심으로」『先
史와 古代』한국고고학회
- 山本忠尙, 1970, 「スキタイ動物意匠の起源と展開」『古代學』제17권
- 山本忠尙, 1972, 「スキタイ式轡の系譜」『史林』제55권 제5호
- 成正鏞 외, 2007, 「鼓樂山城과 馬老山城 出土 馬具에 대하여」『湖南考古學
報』 제27호, 호남고고학회
- 沈奉謹, 1999 『韓國에서 본 日本彌生文化의 展開』학연문화사
- 尹容鎭, 1981 「韓國青銅器文化研究-大邱坪里洞出土 一括遺物 檢討-」『韓
國考古學報』 제10·11호, 한국고고학회
- 李蘭暎·金斗喆, 1999, 『韓國의 馬具』韓國馬事會·馬史博物館
- 伊藤秋男, 1974, 「韓國における三國時代の鑣轡について」『韓』제25호
- 李尙律, 1996, 「三國時代の鑣轡에 대하여-嶺南地方 出土品の 系統을 中
心으로-」『碩晤尹容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李尙律, 2008, 「삼한시대 표비의 수용과 획기-영남지역을 중심으로」『한국상고
사학보』 제62호, 한국상고사학회
- 李熙濬,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

位論文

- 林俊雄ほか, 1993, 『ユーラシア草原における騎馬と馬事の歴史』『馬の博物館 研究紀要』제6호, (財)馬事文化財團・馬の博物館
- 林孝澤, 2001, 『金海良洞里古墳群の調査その成果』『金海良洞里古墳文化(일본어판)』, 동의대학교박물관
- 張允禎, 2003, 『韓半島三國時代の轡の地域色-とくに立聞用金具を中心として-』『考古學研究』50-2, 考古學研究會
- 張允禎, 2006, 『청주 신봉동고분군 출토 鑣轡에 관한 연구』『先史와 古代』24, 한국고대학회
- 張允禎, 2009, 『古代 韓・日 출토 유기질제 鑣轡에 대한 연구』『文物研究』16,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
- 張允禎, 2009, 『가야 수장묘 미구의 의의 - 재갈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加耶의 수장들』, 김해시
- 趙榮濟, 1997, 『玉田古墳群의 階層分化에 대한 研究』『嶺南考古學』20
- 増田精一, 1964, 『スキタイ系文化の銜留金具』『MUSEUM』159
- 増田精一, 1996, 『日本馬事文化の原流』芙蓉書房出版
- 坂本美夫, 1985, 『馬具』考古學ライブラリー34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千賀 久, 1988, 『日本初期馬具の系譜』『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九
- 千賀 久, 1994, 『日本初期馬具の系譜2』『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十二
- 穴澤和光, 1990, 『古墳文化と鮮卑文化-榆樹老河深墓地出土冑をめぐって-』『季刊考古學』제33호
- M. A. LITTAUER AND J. H. CROUWEL, 2002, 『SELECTED WRITINGS ON CHARIOTS AND OTHER EARLY VEHICLES, RIDING AND HARNESS』BRILL/LEIDEN・BOSTON・KOLN

(報告書・圖錄)

- 慶北大學校博物館, 2002, 『鶴尾里古墳』
- 慶尙大學校博物館, 1988, 『玉田古墳群Ⅰ-木槨墓-』
- 慶尙大學校博物館, 1990, 『玉田古墳群Ⅱ-M3號墳-』
- 慶尙大學校博物館, 1992, 『玉田古墳群Ⅲ-M1・M2號墳-』
- 慶尙大學校博物館, 1993, 『玉田古墳群Ⅳ-M4, M6, M7號墳-』
- 慶尙大學校博物館, 1995, 『玉田古墳群Ⅴ-M10, M11號墳-』
- 慶尙大學校博物館, 1997, 『玉田古墳群Ⅵ-23・28號墳-』
- 慶尙大學校博物館, 1998, 『玉田古墳群Ⅶ-12・20・24號墳-』

- 慶尙大學校博物館, 1999, 『玉田古墳群Ⅷ-5・7・35號墳-』
- 慶尙大學校博物館, 2000, 『玉田古墳群Ⅸ-67-A・B, 73~76號墳-』
- 慶尙大學校博物館, 2003, 『玉田古墳群Ⅹ-88~102號墳-』
- 慶州文化財研究所, 1993, 『皇南大塚(南墳)發掘調査報告書』
- 慶州市・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慶州市 栗洞 1108番地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國立中央博物館, 1998, 『特別展 韓國古代國家形成』
- 國立中央博物館, 1999, 『特別展 百濟』
- 國立博物館, 1964, 『皇吾里4・5號墳, 皇南里破壞古墳發掘調査報告』
- 國立慶州博物館 外, 1990, 『慶州市 月城路古墳群』
- 金載元・尹武炳, 1962, 『義城塔里古墳』, 國立博物館
- 金正基 外, 1974, 『天馬塚』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金鍾徹, 1981, 『高靈池山洞古墳群』啓明大學校博物館
- 文化財研究所, 1985,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Ⅰ』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0, 『東萊福泉洞古墳群Ⅱ』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7, 『蔚山下垜遺蹟-古墳Ⅰ』
- 釜山福泉博物館, 2001, 『古代戰士와 武器』
- 沈奉謹外, 1992, 『昌寧校洞古墳群』東亞大學校 博物館
- 尹容鎮・金鍾徹, 1979,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 忠北大學校博物館, 1983, 『清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1982年調査-』
- 忠北大學校博物館, 1990, 『清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1990年調査-』
- 忠北大學校博物館, 1995, 『清州新鳳洞古墳群』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尙州新興里古墳群』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慶山 林堂遺蹟(Ⅰ) A~B地區 古墳群』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清原 主城里遺蹟』
- 加古川市史編纂專門委員編, 1996, 『加古川』第四卷史料編Ⅰ
- 岡山市立オリエント美術館, 2002, 『特別展 古代イラン 秘寶展-山岳に華開いた金屬器文化-』
- 群馬縣古墳時代研究會, 1996, 『群馬縣内出土の馬具・馬形埴輪』
- 高浜秀ほか, 1992, 『圖錄 スキタイ黃金美術展』일본방송협회・NHKプロ

モーション

- 鎌木義昌・間壁忠彦・間壁菫子 1965『隋庵古墳』總社市教育委員會
京都大學總合博物館, 1997, 『王者の武裝』, 京都大學總合博物館 春秋企
劃展 圖錄
宮崎市教育委員會, 1977, 『下北方地下式横穴第5號緊急發掘調查報告書
』宮崎市文化財調查報告書 第3集
樂浪漢墓刊行會, 1975, 『樂浪漢墓』第2冊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1976, 『葛城・石光山古墳群』奈良縣史蹟名
勝天然記念物調查報告 第31冊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1981, 『新澤千塚古墳群』奈良縣史蹟名勝天
然記念物調查報告 第39冊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 2003, 『古墳時代の馬との出會
い-馬と馬具の考古學』春秋特別展圖錄
島田清・上田哲也ほか, 1965, 『印南野-その考古學研究 I-加古川工業
用水ダム古墳群發掘調查報告』加古川市教育委員會
東京國立博物館, 1986, 『東京國立博物館 圖錄目錄-古墳遺物編(關東Ⅲ)』
東京國立博物館, 1997, 『大草原の騎馬民族-中國北方の青銅器』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編, 2002, 『三燕文物精粹』遼寧人民出版社
遼寧省博物館文物隊, 1984, 『朝陽袁台子東晉壁畫墓』『文物』6
馬の博物館, 2001, 『所藏品選集 増補版』(財)馬事文化財團・馬の博物館
末永雅雄編, 1991, 『盾塚 鞍塚 珠金塚古墳』由良大和古代文化研究會
梅原末治, 1920, 『松尾村穀塚』『京都府史蹟勝地調查會報告』
狛江市史編纂委員會, 1985, 『狛江市史』
斑鳩町, 1986, 『斑鳩藤ノ木古墳』
西田弘・鈴木博司・金關恕, 1961, 『新開古墳』『滋賀縣史蹟調查報告 第
二十冊』, 滋賀縣教育委員會
宇治市教育委員會, 1991, 『宇治二子山古墳發掘調查報告』, 宇治市文化
財調查報告書 第2冊
財團法人 岐阜縣文化財保護センター, 2002, 『後平茶臼古墳・後平古墳』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9, 『北京大葆台漢墓』, 文物出版社
筑後市教育委員會, 1984, 『瑞玉寺古墳』
樋口隆康・岡崎敬・宮川徒, 1961, 『和泉國七觀古墳調查報告』『古代學研究』27

Abstract

The structural analysis development process of the Horse bit and bridle in the East Asia

Chang, Yoon Chung

In the macro perspective, this study heavily focuse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horse equipment particularly the bits and bridles which have a stick ends. These objects seemed to be introduced here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Japan and China) from West and Middle Asia. Especially it should be highlighted that this work divided four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technique of the bits and bridles. They are as such: Penetration, All-in-one, Combination and Insertion. Penetration type has a small hole in the middle of the bits and the bridle was penetrated through the hole. At the end of the stick, then, there is a outer circle which to hold the bits. In case of All-in-one, the bridle and the bits are directly combined and stuck together. A hole or circle which is attached to the bridle are connected to the bits and this is a Combination type. Finally the Insertion type is the one which is known as the general bits and bridles and so bridles were inserted to the bits. This kinds of combined bits and bridles seemed to be identified from West Asia, Middle Asia and Japan throughout more than 1500 years in history. However, this is also very interesting to point out that all those findings have distinctive and unique feature which cannot be unified into one certain type.

Key Words : Bits and bridles, Stick, Penetration, All-in-one, Insertion, Combination, West Asia, Middle Asia, East Asia, China, Japan, Korea

